



황금빛 갈대의 순정 1일 황금빛으로 물든 순천만 갈대가 바람에 일렁이며 춤을 추고 있다. 순천만 갈대숲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다. 연안습지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2006년 1월 20일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갈대 군락에선 흑두루미와 검은머리 갈매기, 황새, 저어새, 노란부리백로 등 국제 희귀조류를 볼 수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순천만 갈대숲.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國費 안내려와...올 예산 6조 해 넘긴다

〈국비〉

전남 1조4589억·22개 시군 4조2081억·광주 6천억
재정 집행률 70~80%대 ... 대규모 이월사태 불가피

“조기집행 경기활성화” 헛구호

올해 예정된 국비 지원이 미뤄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재정집행률이 각각 80%대와 70%대에 갇힌 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낮은 재정자립도 탓에 국비 의존도가 높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업 연기 및 예산 이월

에 의한 행·재정력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또 연말 무리한 재정 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를 전망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본청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달 29일 기준 87.5%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도 본청의 예산 집행률은 79.39%(지난달 25일 기준) 그리고 22개 시·군은 65.72%로, 모두 합쳐 70.72%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4조8515억원 가운데 4조

■ 지자체 올해 예산 집행률

광주시	87.5%	(4조 851억 중 4조 2436억)
전남도	79.39%	(7조 796억 중 5조 6207억)
시·군	65.72%	(12조 2767억 중 8조 686억)

2436억원을 집행해 6000억원 가량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7조796억원 가운데 5조6207억원, 22개 시·군은 12조2767억원 중 8조686억원을 집행, 각각 1조4589억원과 4조2081억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재정 세입·세출기간(출납폐쇄기간)이 올해부터 ‘당해연도 12월’로, 기존 ‘다음해 2월’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지면서 5조6670억원이나 되는 미집행액이 남은 전남도와 각 시·군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지방재정 집행률 달성에 비상이 걸리자 예산 집행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של 예산’

이 없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예산 이월 사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행정자치부에 국고보조금의 적기 배정 및 송금을 2차례나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은 국비는 7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18.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재원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전남도는 일단 연말까지 본청 91.8%, 시·군 80.7%의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집중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은 현재 예산이 있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국비가 이월 초까지 획기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이월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불수능’

국·영·수 2~3문항 틀리면 1등급 ... 만점자 비율 크게 줄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년도에 견줘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수능’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와 달리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교육 당국의 ‘지난해 수능, 올 6·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방침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 당국의 기조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의 중요성을 감안, 향후 예측 가능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정책으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수험생에게는 2일 성적표가 배부된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A형의 경우 134점(0.8%), 국어B형 136점(0.3%), 수학 A형 139점(0.3%), 수학B형 127점(1.66%), 영어 136점(0.48%)이다. 국어 B형 만 위낙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139점)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3점 낮아졌을 뿐 나머지는 국어 A형(2점), 수학 A형(8점), 수학 B형(2점), 영어(4점)씩 최고점이 올라갔다. 국어 B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영역 시험이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얘기로, 시험

이 어려웠던 만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은 지난해와 달리,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 설명이다.

만점자 비율도 줄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만점자가 3.37%로 역대 수능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만점자는 0.48%에 불과했다. 국어 A형도 0.80%(지난해 1.37%), 수학 A 0.31%($\sim$ 2.54%), 수학 B 1.66%($\sim$ 4.30%) 등으로 감소했다. 국어 B형은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만점자 0.09%)보다 다소 상승, 올해 0.3%로 나타났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1등급 컷라인은 국어 A형 130점(4.25%), 국어 B형 129점(4.99%), 수학 A형 136점(4.66%), 수학 B형 124점(6.60%), 영어 130점(4.62%)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수능은 국어와 영어, 수학에서 2~3문항 정도 틀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인문계의 경우 수학이, 자연계는 영어와 과학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철수”

안철수 광주서 1박2일 ... “호남만 물같이? 전국 확대해야”

‘혁신 전당대회’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표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 전당’을 고리로 세 걸질을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대선출마와 신당창당 등 잇단 정치적 도전에 나섰다 방향을 선회해 ‘철수 정치’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안 전 대표는 1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철수(강한 안철수)’를 선언하는 등 강한 면모를 보이며 스킨십과 대외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나섰다. 혁신전대는 물론 총선·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문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조직과 세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혁신전대에 대해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강철수’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소신있게 관철하



란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공천 혁신의 방향과 관련, “특정 지역이나 계파, 개인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도 혁신 토론회 또는 강연 일정을 확대하며 ‘혁신 전선’ 구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 안팎 인사들과의 면담 등 접촉을 확대해 나가며 혁신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만남에는 천정배 의원 등 신당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대표는 조만간 새로운 인재영입 방안을 발표하며 혁신 비전 공개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겔피부는 신통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유명화장품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